

‘검증 칼날’ 위에 선 김건희

민주, 허위이력 집중 제기
윤석열 ‘내로남불 공정’ 공세
국민의힘, 당혹 속 총력 옹호
후보 부인 대선 중립될까 불안



민주, 김건희 해명 반박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왼쪽부터)·권인숙·서동용·도중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후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외부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검증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김씨의 공개 활동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 오자 여론이 김씨의 과거 허위이력을 집중 제기하며, 윤 후보까지 싸잡아 도덕성 시비의 늪으로 몰아넣는 모양새다. 특히 공정 문제를 파고들어 윤 후보에게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 이리저러저러 얘기한다는 게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당사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 긴급회의를 소집한 김 위원장은 대응책 마련과 관련,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할 일은 '정말 이런 문제가 대선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파수를 맞췄다. 선대위는 당분간 클린선거전략본부 산하 네거티브검증단을 주축으로 김씨 관련 현안 대응에 나선 전망이다. 경선 캠프 당시 주진우 변호사가 실무를 이끌었던 법률팀이 개편된 조직이다. 여기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으로 메시지 장구를 일원화해 여론의 파상공세에 실시간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선대위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김씨가) 감정관리를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선대위 관할 범위에 포함해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신상 검증이 거세지면 김씨의 공개 활동은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판' 시점에 대해서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도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결국 "윤 후보 부부 두 사람의 결심에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김씨 본인은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것은 싫다"며 "봉사와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흡집 내기에 혈안이고, 언론 환경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후보 배우자로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靑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 반대

민주당에 전달...당청 갈등 우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한시적 유예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여당 대선후보의 정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여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이 후보가 제안하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보이는 등 여권 내에서도 이점이 분출되면서 혼선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유예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여권 내부의 의견대립이 한층 격화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정책

에 있어 이 후보의 대안 제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현재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인 '다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다중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폭발성이 큰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여론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에 김동찬

임기 2년...1년 단위 연임도 가능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김동찬(56·사진)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결정됐다.

15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최근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오모한 결과 최종 경합을 벌인 A씨를 제치고 초대 대표이사로 뽑혔다.

김 전 의장은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이날 시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수리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김 전 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내부 규정에 따라 1년 단위 연임도 가능하다.

김 전 의장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북구의회 의장과 7·8대 광주시의원, 8대 전남



기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회 내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 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출범하게 되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3개 팀 2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노사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회가 있다. 현재 임원 공모 및 창립이사회 개최, 법인 설립 허가·등기, 직원 채용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단은 앞으로 노사상생문화 선도사업 추진, 노사상생 정책연구, 상생형일자리 모델 구축·확산 등 체계적인 노동정책과 상생형일자리 연구 및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전남선대위 첫 대책회의...대선모드 돌입

국민의힘 전남도당(김화진 위원장)은 15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당사에서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전남 선대위는 국회 부의장 출신 박주선 전 의원, 고(故) 홍남순 인권변호사 아들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홍기훈 전 의원, 유수택 전 최고위원, 김화진 현 전남도당위원장 등 4명의 공동총괄선대위

국민의힘 전남선대위는 "정권교체 전남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정권교체는 전남의 힘으로 이뤄낸다는 필승의 각오와 희생정신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남선대위는 또한 여성·청년·농수산 정책 등을 지원해줄 분야별 전문가 영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선대위 강화를 위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석열 1기 선배 양부남, 윤석열·가족 검증한다

민주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합류
"실체적 진실 밝혀 국민에 알릴 것"



'섹소폰 부는 신사' 양부남(사진) 전 부산고검 검사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가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 양 전 고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들을 오랜 검사 생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왜곡되지 않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윤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의

혹'을 집중 검증하는 신설 조직이다. 이와 관련 양 지원단장은 "현재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해석 뿐 아니라 윤 후보의 의혹을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대선 국면에서 양 지원단장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양 지원단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윤석열 후보의 한 기수 선배이며, 같은 '특수종'인 윤 후보와 함께 근무한 경험도 있고, 윤 후보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과도 인연이 깊다. 2018년 권 사무총장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단장을 양 지원단장이 맡았었다.

양 지원단장은 "함께 근무했을 때 윤 후보는 사람이 호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학 강의에 앞서 섹소폰 연주를 하는 등 양 검사장의 이력은 특이하다.

그는 공고(담양공고)·지방대(전남대 법대) 출신이며, 검찰 일선에서 조폭과 미약사범, 공직자 비리 수사 등에 특유의 소신과 배짱으로 광복할만한 성과를 올려 '강력·특수종 배태랑 검사'로 정평이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